

보도시점

2024. 5. 3.(금) 08:30

배포:

2024. 5. 3.(금) 08:30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위해 관계기관이 뭉쳤다!

- 국민권익위, 충남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교통환경 개선사업 확산, 악성 민원 공동 대응 논의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충남지방경찰청에서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충남지방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보행자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 국민권익위는 2014년부터 국민 안전을 위해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진행해 왔다. 올해는 교통·보행 여건과 맞지 않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신호체계, 보행 안전시설, 교통안전시설 등을 개선하는 사업을 세종시에서 시범으로 시행하여 최적의 개선모델을 개발한 후, 충청남도를 거쳐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경찰청·지자체 등과 협업해 권역별 교통사고 빈발지점 개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취약지점 개선, 역주행 교통사고 취약지점 개선,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수목 정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 노면표시 등 개선

□ 오늘 간담회에서는 국민권익위원장을 비롯해 오문교 충남지방경찰청장, 서범규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등 관계기관장이 직접 참석해 교통환경 개선 시범사업의 성공적 시행과 확산을 위한 기관의 역할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또한 최근 공식사회의 사기를 저하하고, 정상적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악성 민원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기관 차원의 공동 대응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보행자를 우선하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 기관장이 함께 모여 고민하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 안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기관 간 벽을 허물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내실 있는 방안이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경찰민원과	책임자	과 장	안문주 (044-200-7381)
		담당자	사무관	박세희 (044-200-7392)

